

한라시론



김 용 성
시인·번역가·교사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사상 초유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됐다. 이번 온라인 개학 조치는 바리우스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면이 있는데,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지금껏 겪지 못한 일이라 준비 과정에서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 있다. 개학이 계속 연기되다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하니 학부모 입장에서 꽤 난감할 수 있다. 컴퓨터, 인터넷, 헤드셋, 웹캠 등은 이상 없는지 살펴보게 되는데, 이보다 더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바로 아이의 컴퓨터 습관이다.

온라인 개학, 어떻게 맞이할까?

컴퓨터 게임이나 유튜브 영상에 아이가 지나치게 빠져 있거나 조절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라면, 부모는 아이와 대화를 통해 아이가 분별력과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다 사용이 어떤 점에서 안 좋은지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아이가 스스로 말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기회를 줘야 한다. 온라인 수업에 임하기 전에, 이처럼 ‘아이와 컴퓨터 간 관계 재정립’을 우선 바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정에서는 온라인 학습을 아이의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학교에서 수업받듯, 온라인 수업도 교과서와 공책을 꺼내 놓고 집중하며 듣는다는 점을 아이가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TV 보듯 그냥 보고 듣기만 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책에 필기하면서 주요 내용을 놓치지 않고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 기존 학

교 수업과는 달리 온라인 수업에서는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수업 내용 정리에 큰 도움이 된다. 반 분위기에 덜 영향받고, 선생님 주도가 아닌 아이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면서 ‘자기 속도’에 맞추어 학습을 이해하고 소화하게 된다. 부족하면 다시 들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다른 자료를 찾아서 보충할 수도 있다. 부모는 짬짬이 아이의 온라인 수업에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자주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 수업 내용을 말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설사 부족한 점이 나타나더라도 부모는 이를 탓하기보다 아이가 자신의 학습 태도를 스스로 돌아보고 고쳐나가게 하면 된다. 이렇게 온라인 학습으로 학습 태도를 점진하고 반성하는 능력, 수업 내용을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이해한 내용을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 등을 증진 시킬 수 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질문도 교실 수업 상황보다 더 자유롭다. 분위기나 눈치를 덜 봐도 되고 성격상 적극적이지 못한 아이들도 마치 ‘채팅’하듯 더 솔직하게 부담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부모는 이처럼 온라인 개학을 아이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개학은 학교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 이전 학교도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에 연연해선 안 된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코로나19 같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해 학교는 능동적으로 변화하며 적응해야 한다. 21세기 아이들에겐 온라인학교가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 있다. 20세기 부모와 선생님이 먼저 생각을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21세기 학교가 드디어 시작됐다.

사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현안에 따라 엇갈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에는 잘 대처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제주현안에 대한 갈등조정은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민들은 제주의 가장 시급한 해결 현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한라일보·제민일보·JIBS 언론3사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지역현안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나왔습니다. 조사결과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관리 등 대응 평가에서 83.1%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15.3%에 그쳤습니다. 반면 제주도정의 제2공항 등 지역현안에 대한 갈등조정은 ‘잘 못하고 있다’(54.5%)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36.6%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시급한 해결 현안 1순위로 41.8%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택

했습니다. 이어 제2공항 갈등 해소 18.8%, 난개발 방지 17.7% 순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주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어 말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제주경제가 최대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러잖아도 지난해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경제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얹힌 데 덧붙여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제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들이 모두 암울합니다. 1차산업을 비롯해 관광산업과 건설업 등 3대 산업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제주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도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대 이슈로 꼽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운동선수들 ‘일상화된 폭력피해’ 어찌나

제주지역 운동선수들이 일상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선수들중 ‘열에 넷’은 성폭력피해 경험(목적 포함)도 제기돼 충격입니다. 운동선수들에 대한 폭력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사후약방문’식으로라도 해법을 위한 체육계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최근 발표한 도체육회 230명, 도장애인체육회 216명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한 도내 첫 폭력실태 조사결과 종합분석 보고서를 보면 폭력 목적을 포함한 폭력피해 경험에 두 체육회 선수들 모두에게 일상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 충격스런 일은 도체육회 운동선수의 39.9%, 도장애인체육회 선수 2.6%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수 열명 중 네명은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도체육회는 조사결과와 관련, “과거 초·중·고교시절 경험까지

포함해 묻은 것이며, 현재 폭력행위는 거의 근절됐다”는 입장을 내놔지만 조사결과로 볼때 ‘과거일’로만 치부할 일인지, ‘현재형’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이 이번 조사에서 폭력 필요성에 대해 일반·장애인선수 모두 ‘폭력이 문제해결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높게 가져 선수들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줬다는 사실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과거로부터 상존하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질서에도 폭력에 관련한 그릇된 관행, 성적지향주의 운동부 운영 등이 체육계의 일상화된 폭력으로 이어진 것이라 해석됩니다. 제주 체육계는 운동선수 폭력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 처벌 방침과 함께 스포츠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선수와 지도자 모두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편집국 25시

코로나19 정국 속 총선



부 미 현
정치부 차장
bu8385@ihalla.com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이전 선거들보다 투표율에 대한 걱정이 많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무형의 피해를 본 유권자들은 투표장을 찾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 감염 취약계층인 노년층도 투표를 하러 나서기가 무섭다. 유권자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독려와 철저한 투표소 관리가 요구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선거야말로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4·15 총선 국면에 들어서자마자 여야가 제주 현

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쏟아내고, 앞다퉈 공약을 내놓는 것만 보아도 선거가 가진 위력을 알 수 있다. 유권자는 정치권에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 회초리를 들고, 응원이 필요할 때는 응원하며 주권자로서 능동성을 가져야 한다. 정치인이 국민이 갖고 있는 한 표의 위력을 알아야 정치도 발전할 수 있다. 만일 매일 쏟아지는 후보들의 공약을 일일이 챙기기 어렵고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TV 토론회를 활용해도 좋다. 생방송 토론회를 보기 어렵다면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한라일보·제민일보·JIBS 언론3사가 주관 토론회를 다시 보길 할 것을 권한다. TV 토론회만 봐도 후보들의 자질과 인성을 어느 정도 평가해볼 수 있다.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정책 비전은 물론, 논리적인 질문과 답변 능력, 토론을 진행하는 태도 등에서 후보들의 장단점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제주의 현안이 녹록지 않다. 현명한 제주 유권자들의 한 표를 기대해본다.

뉴스-in

신혼여행지 부활의 기지개 활짝

CEO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이달 16일부터 24일까지 청년농업인 CEO 양성과정 교육생 40명을 선착순 모집.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집합교육 대신 화상회의 앱을 이용한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할 계획.
문선희 인력교육팀장은 “미래 제주 농업·농촌을 이끌 청년농업인에게 독립경영 성장 기회 마련과 농업기술 및 농장운영 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
“칸막이 허물고 도전하라”
○…제주시가 8일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시민행복을 위한 2020중점사업 26개는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교통환경 개선과 청정 제주 환경 보전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

시는 고회법 시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시민행복을 위한 당대한 시정 운영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검토를 거쳐 중점 사업을 선정.
고 시장은 이와 관련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시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호텔업계 허니문패키지 연장
○…코로나19로 최근 해외여행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제주가 다시 신혼여행지로 급부상.
이에 따라 도내 호텔업계에서도 각종 허니문 패키지를 내놓으며 제주가 과거 대표 신혼여행지 향수를 불러일으켜 부활의 기지개를 활짝.
호텔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줄며 초반 큰 위기를 맞았다”며 “하지만 최근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제주를 찾는 신혼부부들이 늘며 이벤트를 기획했고, 반응이 좋아 운영기간을 연장했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부 고

이창수(그랜드첼레기구 대표) 어머니
창원황씨 정옥(향년 94세)께서 서기 2020년 4월 7일 18시 44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2020년 4월 9일(목요일)
- ▶ 발인일시: 2020년 4월 10일(금요일) 오전 7시
- ▶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1분향실
- ▶ 장 지: 해안동 가족묘지

아 들 이 창 수 며느리 강정열
딸 복순 사 위 이경연

손 자 승철 손 부 박성희
손 녀 주연 손 서 강민성
승희 고영준

외손자 이영석
민석 외손부 송석영
외손녀 형미 외손서 강부식

※ 연락처 : 이창수 010-4691-0005
강정열 010-6456-3617

부 고

한은정 남편 제주고공 옹호(천만기업전무, 제민신헌 감사, 향년 50세)께서 서기 2020년 4월 7일 22시 4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2020년 4월 9일(목요일)
- ▶ 발인일시: 2020년 4월 10일(금요일) 오전 6시
-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 ▶ 장 지: 종달리 가족묘지 (구좌읍 상도리 1120번지)

부 인 한 은 정

아 들 고 주 원

지 안

부 고 수 천

동 생 고 용 범

※ 연락처 : 한은정 010-6238-4454
고수천 010-3699-0482
고용범 010-8661-2770
부민장례식장 742-5000

부 고

문철수(前 남읍금고 이사장)·정수(前 농업기술원 국장) 어머니 김해 김씨 순열(향년 96세)께서 서기 2020년 4월 8일 11시 4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2020년 4월 9일(목요일)
- ▶ 발인일시: 2020년 4월 10일(금요일) 오전 7시
- ▶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101호 분향실
- ▶ 장 지: 어음리 선영

남 편 문재경(故)

아 들 문철수 며느리 변군자(故)

정수 김신옥

손 자 문진환 손 부 강다혜

개성 문희영

용화 이경아

성춘 부지정

경보 장현주

손 녀 문화선 손 서 김경표

정선 백경일

※ 연락처 : 문철수 010-2696-3192
문정수 010-6778-1589
김신옥 010-7730-8295
문진환 010-2747-0587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건제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방수 단열

우 레 탄
우 레 아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